

summer / fall 2019 — vol.9

다행

Special 한 걸음 그리고 한 걸음





모리츠 폰 슈빈트(Moritz von Schwind), 아침시간(The Morning Hour), 1860
캔버스에 유채, 34.8 x 41.9cm, Schackgalerie

어젠가 걱정이 너무 많은 날. 잠이 덜 깬 부스스한 얼굴로 창문을 열면 한없이 가벼운 공기가 흘러들어온다.
어, 괜한 걱정이었네. 지난밤 걱정을도 편안한 자리를 찾아 흘러진다.

Contents

summer / fall 2019 — vol.9



Story

02

힐링에세이

한 걸음 그리고 한 걸음

12

힐링로드

남해에서 보낸
사소한 일주일

22

힐링&무비

영화 '로니를 찾아서'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

26

힐링라이프

치유의 색
뜻밖의 위로

With U

30

#외국인 대상 범죄

혐오와 차별에서 비롯되는
외국인 대상 범죄

32

전문가 칼럼

조금은 특별한 활동

34

피해자 수기

딸아이와 함께 사는 그날을 기다리며

36

범죄피해자 지원 사례Ⅰ

외국인 범죄피해자 지원 사례 엿보기

39

범죄피해자 지원 사례Ⅱ

피해망상증이 부른 참사
진주 방화 살인사건

42

범죄피해자 지원 사례Ⅲ

아픔을 딛고 내민 따스한 손길

44

다령안심캠페인

세상을 위한 의미 있는 발걸음

News

48

연합회 뉴스

센터 뉴스

범죄피해자 감사편지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 사보

통권 9호(비매품)

발행일 2019. 7. 31.

발행인 김갑식

발행처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

디자인 화이트 02.512.3747

인쇄 서진문화인쇄사 02.2274.1439

※ 외부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STORY 힐링에세이

한 걸음
그리고 한 걸음

C

h

e

e

r

괜찮지 않아도 괜찮아요。
좀 더 자신감을 가져요. 그리고 한 걸음 나아가요. 당신을 잃지 말아요。

write 최다솜(자유기고가)
photograph 최다솜, shutterstock

알아요, 당신 탓이 아니라는 걸.
그러니 용서해요.

잊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돼요.
앞만 보고 달리지 않아도 괜찮아요.



단 한 걸음이라도
앞을 향해 있다면 알게 될 거예요.

별 것도 아닌 일을,
그토록 힘들게 붙들고 있었구나.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한순간도 혼자였던 적이 없어요.



도움이 필요할 땐 솔직하게 말해요. 위로받고 싶을 땐 언제든지 기대요.
 약한 소리를 내도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언제나 자신을 믿는 거예요.
 마음을 놓치지 않는 것.
 방향을 잃지 않는 것.
 계속해서 살아나가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해요.





STORY 힐링로드

남해에서 보낸 사소한 일주일



남해의 작고 조용한 마을에서 일주일을 보냈다.
마치 그곳에 오래 살았던 사람처럼
느지막이 일어나 밥을 해 먹고,
느긋하게 동네를 산책하는 일로 하루를 시작했다.
바닷가를 걷고, 멍하니 앉아
어딘가를 바라보고, 해가 저물 즈음 집으로 돌아왔다.
그저 마음 가는 대로, 그게 전부였다.

edit 최다솜(자유기고가) cooperate 한국관광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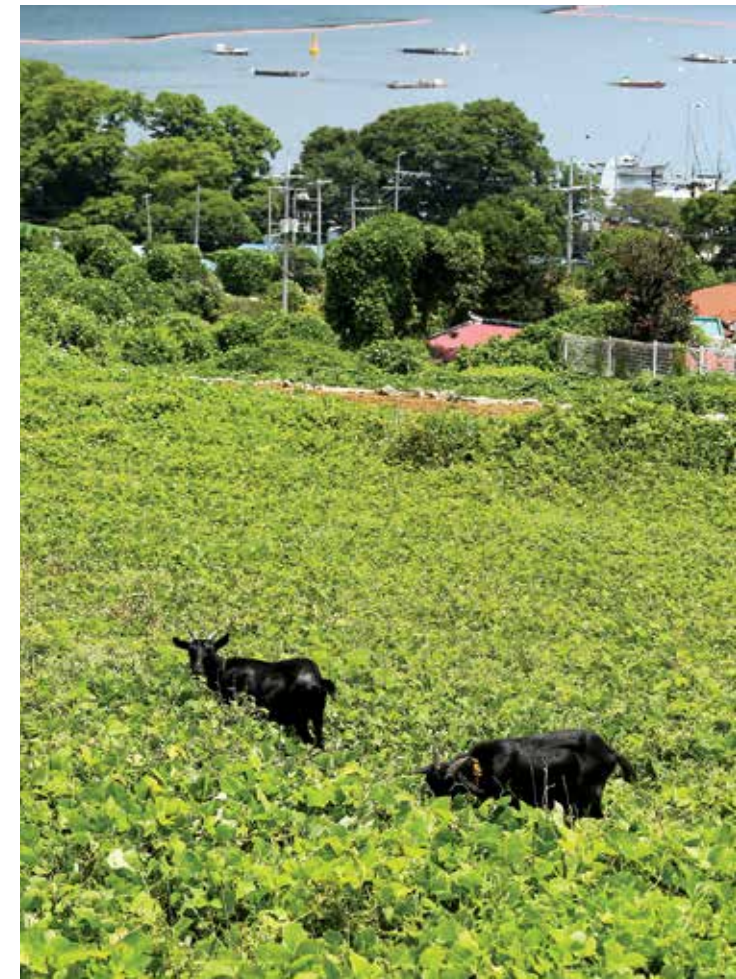
보통의 동네, 보통의 집

남해는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 여행은 관광 명소를 찾아다니느라 사흘이 빠듯했다. 이번에는 중심가를 벗어나 한가로이 시간을 보내기로 마음을 먹고 방을 예약했다. 이름은 보통의 집. 서울에서 내려온 젊은 부부가 아이 셋을 키우며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였다. 숙소가 있는 물건마을에는 오후 세 시가 막 지나서 도착했다. 게스트하우스는 마당을 사이에 두고 주인집과 앞뒤로 붙어 있었다. 공동 거실 겸 주방이 있는 아담한 집이었다. 디자인을 업으로 삼는 주인의 안목이 고스란히 느껴졌다. 방은 모두 넷. 둘은 화장실이 딸려 있고 그중 하나는 단독 주방을 갖췄다. 안내를 받아 방으로 들어섰다. 화장실이 있는 두 번째 방이었다. 하얀 벽에 채도가 낮은 패브릭 소품과 나무 가구를 들어 차분한 분위기가 풍겼다. 커튼이 쳐진 덧문을 살짝 열고 침대에 기대앉았다. 부드러운 크림 같은 바람이 나른하게 방을 감쌌다. 침대 옆에 짐을 부려 놓고 가벼운 마음으로 집을 나섰다. 네다섯 시쯤, 해가 지기 전의 늦은 오후였다. 바다로 향하는 골목을 기웃거리다가 동네 어귀에 있는 슈퍼에 갔다. 낚시용품들 걸들인 작은 가게였다. 커다란 물 두 병을 안고 돌아서는데 가게 뒷문 앞에 조그마한 들꽃이 떨어져 있었다. 조심스레 주워 집으로 가져와 거울 옆에 놓았다. 소박한 방이 금세 화사해졌다. 가방을 풀어 소소한 물건들을 꺼내 테이블에 나열하고, 다음날 입고 싶은 옷의 짝을 맞춰 한쪽에 걸었다. 낮선 방이 온전한 나만의 공간처럼 느껴졌다.



소소하지만 시시하지 않은 날들

남해에서의 일상은 매번 비슷하게 시작됐다. 알람을 맞추지 않아도 눈은 떠졌고 오전 시간은 늘 동네에서 보냈다. 물건마을은 한눈에 들 정도로 암전하게 들어앉아 길을 잃을 염려가 없었다. 멀리 보이는 숲길과 그 너머 바다에 가고 싶으면 그저 그쪽으로 걸으면 됐다. 골목에서는 10분 이상 아무도 마주치지 않을 때가 많았다. 그만큼 조용히 말을 걸어오는 것들을 한 번 더 바라볼 수 있었다. 나무 사이사이로 비추는 햇살, 바닥에 누워 몸을 말리는 콩들, 울망쫄망 매달린 빨래를 만날 때마다 걸음을 멈추고 시간을 보냈다. 오며 가며 눈을 마주치고 인사를 나누는 강아지와도 정이 들었다. “강아지야 안녕!” 지날 때마다 소리 내어 말을 걸었지만 이상하게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한 번은 낮게 쌓아 올린 담 너머로 눈길을 돌렸는데 할머니가 들어오라고 손짓했다. 할머니는 손수 가꾼 포도나무와 큼직하게 피어오른 수국을 내보이며 흐뭇해했다. 마당 한쪽에는 묻어둔 지 십 년이 넘는 김장독이 입을 벌리고 있었다. 개복숭아를 씻는 할머니 옆에 쪼그리고 앉아 김치 담그는 비법에 대해 한참을 들었다. 옮겨울 갓 버무린 할머니의 김치를 맛보는, 소박한 꿈을 꾸기도 했다. 아침이든 저녁이든, 하루에 한 번은 꼭 바다에 갔다. 특별히 할 일이 있었던 건 아니었다. 그저 멀리까지 걸어갔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거나, 해가 질 때까지 우두커니 지켜보거나, 아니면 쏟아지는 햇볕을 쬔다. 책을 읽었다.





이들은 다른 동네로 나가 바다 구경을 했다. 설리해수욕장은 평온했고, 상주 은모래비치는 눈부셨다. 언제나처럼 걸거나 비스듬히 누워 음악을 듣고, 나무가 적당히 우거진 자리에 앉아 아이스크림을 먹었다. 그게 전부였지만 전혀 따분하지가 않았다. 오히려 매시간 햇살에 따라 달라지는 풍경을 감상할 수 있어 선물을 받는 기분이었다.

풍경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어간다는 것

남해에 있는 동안 늘 날이 좋았던 건 아니었다. 하루는 비가 쏟아졌고, 하루는 폭염이 찾아왔다. 여행 중에 날씨가 나쁘면 손해 보는 느낌이 들곤 했는데 이번엔 좀 달랐다. 곳은 날씨 나쁨의 즐거움을 찾아 하루를 보냈다. 그러는 동안 지극히 일상적인 순간에도 행복을 느꼈다. 무엇보다 소박한 마을 풍경처럼, 점점 원하는 게 적어진다는 사실이 홀가분했다.





아침부터 비가 오던 날에는 자고 일어난 차림 그대로 그 풍경을 즐겼다. 집 마당에 있는 의자에 기대 책을 읽기도 하고 음악을 듣다 다시 잠이 들기도 했다. 특별할 것 없는 시간이었지만 흠잡을 데 없는 완벽한 행복에 콧노래가 나왔다. 내일도 모레도 비가 오면 이러겠노라고 다짐했다. 빗방울이 찾아들고 나서는 슬렁슬렁 동네 빵집에 갔다. 산책하면서 눈여겨봐 둔 곳이었다. 창가에 앉아 남해 유자가 들어간 독일식 과일 케이크를 먹었다. 눈이 휘둥그레지는 맛이었다. 먹다 남은 케이크는 포장을 부탁하고 바다 앞 숲길로 향했다. 나무가 우거져 비가 쉽게 들이치지 않아 걷기 좋았다. 습한 기운을 내뿜는 숲이 얼마나 운치 있는지, 비 내리는 바다가 얼마나 아늑한지 새삼 느꼈다. 폭폭 찌는 열기에 잠을 설친 날에는 서둘러 집을 나섰다. 더 뜨거워지기 전에 장을 봐다 놓고 빈둥거릴 생각이었다. 2일과 7일에 열리는 남해읍장은 상설시장과 겹하고 있어 꽤 분주했다. 재래시장이라면 흔히 볼 수 있는 채소와 과일들부터 해산물, 농기구, 생활 잡화까지 없는 게 없었다. 제철을 맞은 자두와 찐 옥수수 한 봉지씩 사 들고 어물전을 돌며 구경했다. 살아 움직이는 생선과 꾸덕꾸덕하게 말린 생선이 반반쯤 섞여 있었다.

해가 중천으로 옮겨가는 시각. 바지락과 새우를 한 움큼 사가지고는 집으로 돌아왔다. 더위가 가실 때까지 옥수수와 자두를 물고 책을 보다가 이른 저녁으로 파스타를 해 먹었다. 남해에서 난 재료가 듬뿍 들어가서인지 마지막 한입까지 바다 향이 배어났다.

이날은 해가 더 기울기를 기다렸다가 맥주를 들고 바다에 나갔다. 평소보다 늦은 시간에 만난 바다는 공기부터 달랐다. 자꾸 “참 좋다”라는 혼잣말이 싱겁게 나왔다. 그리고는 해 지는 풍경과 어울리는 음악을 다섯 곡 골라 반복해 들었다. 언젠가 무거운 하루를 버텨내고 있을 어느 날, 이 노래들이 남해의 햇살을 톡 던져줄 거라 믿었다. 금세 밤이 찾아왔고, 희미해지는 파도소리를 아쉬워하며 집으로 돌아갔다.

HEALING with MOVIES



‘영화로 보는 우리’는 영화를 통해 우리의 다양한 상처들을 마주하고, 치유와 위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코너입니다.

write 방미나(나우심리상담센터 대표)



로니를 찾아서
(Where is Ronny...)

2009. 6. 4 개봉
94분, 15세 이상 관람가

감독: 심상국

출연: 유준상, 로빈 쉬엑, 마뎀 알렘 외

영화<로니를 찾아서>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



덴마크의 한 여행사는 'DNA여행'이라는 이색적인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DNA 검사를 통해 '나'의 뿌리를 찾자는 실험이었는데 67명의 다인종 다국적 사람들이 참여했다. 사전 면접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민족과 정체성에 확신을 갖고 있었다. 특별히 싫어하는 나라나 민족을 말하기도 했는데, 예컨대 독일은 전쟁을 일으킨 민족이라서 싫다거나 하는 식이었다. 2주 후, DNA 분석 결과를 듣기 위해 다시 모인 참가자들은 검사결과를 받아든 순간 말을 잊지 못하고 눈시울마저 붉어졌다. '저한테 무슬림과 유대인의 DNA가 포함되어 있다고요?' '11퍼센트가 독일인이라고요?'

참가자들은 'Let's open our world(우리 세상을 열자)'라는 프로젝트의 생생한 증언자들이다. 이주민에 대한 편견을 새롭게 조명한 특별한 DNA 여행은 '이 세상 모두가 이 실험에 참가한다면 극단주의자들이 사라질 것'이라는 프랑스인 참가자의 소감

과 함께 SNS에 광범위하게 공유되었다. EBS 뉴스는 이 실험을 상세하게 보도하며 이렇게 질문한다. '여러분은 몇 퍼센트 한국인입니까?' 이 질문에 나는 10년 전에 개봉한 영화 '로니를 찾아서'가 떠올랐다.

영화 '로니를 찾아서'는 외국인 노동자가 많은 안산의 한 동네에서 시작한다. 태권도학원을 운영하는 김 관장은 원생 모집의 전기를 마련하고자 '국가대표 초청 개관 10주년 행사'를 준비 중이다. 한편 상가번영회 사람들은 불법체류자들의 위험으로부터 동네를 지켜야한다며 자율방범대를 결성한다. 엉겁결에 방범대장으로 선출된 김 관장은 이런 일에 나서는 게 내키지 않았지만 지역유지들과 인맥도 만들고 이참에 학원 홍보도 할 생각이다. 형식적인 자리라고는 하지만 검은 선글라스에 완장, 허리춤에 찬 곤봉은 방



범대원들의 기운을 고무시킨다. 그러나 자율방범대가 원지 알 길이 없는 외국인들에게 그들의 단속은 때때로 위협적이었다. 취객과의 다툼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주먹이 오가는가 하면 좌판을 벌인 외국인에게 곤봉을 휘두르기도 한다. 아이들에게 친절하게 태권도를 가르칠 때의 김 관장과 단속 길에 서있는 김 관장은 영 다른 사람 같다.

드디어 개관행사가 열리는 날, 동네사람들이 잔뜩 초대 된 자리에서 예기치 않은 일이 발생한다. 방글라데시에서 온 청년이 느닷없이 김 관장에게 대련을 신청하자 개관식에 모인 사람들은 '본때를 보여주라'며 분위기를 돋운다. 문제는 그 청년의 주먹 한 방에 김 관장이 기절해 버린 것이다. 그 후 김 관장의 일상은 수치심으로 무너져 버린다.

이렇게 시작되는 영화 '로니를 찾아서'는 태권도학원도 가정도 모두 뒤로하고 오로지 자신에게 주먹을 날린 그 청년을 찾겠다는 복수심으로 길을 나선 김 관장의 여정을 그리고 있다.

영화를 보고 있노라면 관객도 덩달아 로니를 찾게 된다. 그는 김 관장을 한 방에 쓰러뜨리고 화면에서 알뜰게 사라졌다. 그러나 애타는 김 관장 앞에 '뚜힌'이 등장하는 순간 영화는 아이러니한 웃음을 연신 흘리게 만든다. 뚜힌은 그날 로니와 함께 체육관에 왔던 친구로 로니를 찾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잔뜩 독이 오른 김 관장은 로니를 당장 찾아내라고 뚜힌을 몰아치지만, 뚜힌은 해설해설 웃거나 툭툭 반말을 던지며 콧노래만 흥얼거린다. 김현식의 노래 '내 사랑 내 곁에' 때문에 한국에 왔다는 그는 알고 보니 요리사 자격증이 있고 멘사 회원이기도 한 방글라데시의 엘리트다. 그러나 이곳에서는 작은 공장에서 일감을 얻거나 좌판에서 공예품을 팔아 생활하는 불법체류자 신세다.

뚜힌은 로니 찾는 걸 도와주겠다고 김 관장을 이리저리 데리고 다니고, 그 사이 두 사람은 좌충우돌 사건사고를 경험하며 조금씩 가까워진다.

'너 뭐하는 놈이야? 태권도장도 안 나가고. 로니는 찾아서 뭐하게?'



뚜힌의 돌발적인 질문에 김 관장은 말문이 막힌다. '그러게. 나는 왜 로니를 찾아다니고 있는 걸까?' 왜 달려가고 있는지도 모른 채 문득 뒤를 돌아보니 그 길엔 이방인에게 당했다는 수치심과 혐오의 흔적만 남겨놓았다.

두 남자의 기묘한 동행을 따라가다 보면 관객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이방인의 어려운 현실과 그 안에 팽배한 편견을 목도하게 된다. 그러나 어떤 골목에 들어서면 그곳에서는 김 관장이 이방인의 자리로 밀려나 줄행랑을 치는 신세로 전락한다. 74년 호랑이띠 김 관장과 86년 호랑이띠 뚜힌은 '어차피 호랑이띠'라며 어느새 소주잔을 기울이고 있다. 로니는 끝내 얼굴을 보여주지 않았지만 영화의 결말에 다다르면 묵직한 뭉클함이 올라온다. 김 관장은 미처 알지 못했던 새로운 세상을 만나고 자신을 돌아보게 된다. 아이들에게 친절히 웃음을 주었던 본래의 눈빛을 되찾기까지, '로니를 찾아서' 떠난 여행은 분명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다.

우리는 DNA가 다르기 때문에 섞이기 싫은 걸까. 무엇이 그들보다 자신이 우월하다고 믿게 만든 걸까. 오랜 시간을 걸쳐 내려온 '다름'의 냉담함 앞에 덴마크 여행사의 DNA 프로젝트는 정화작용을 일으킨다. Let's open our world! 이 아이디어는 인류의 보편적 감정인 사랑과 관계 맺기의 가치에 대해 신선한 질문을 던진다.

영화 '로니를 찾아서'에서 '뚜힌'역을 열연한 '로빈 쉬엑'은 제1회 디아스포라 영화제에서 '이상한 나라의 산타'를 연출했다. '로니'역의 '마뽀 알업'은 3D 업종 공장에서 일하다가 이주노동자방송(MWTV) 프로그램을 제작했고, 영화 '반두비'에서 한국 여고생과 우정을 나누는 '카림'역을 맡은 바 있다.



STORY 힐링라이프

color Art exhibition

치유의 색, 뜻밖의 위로

색은 사람의 감정에도 큰 영향을 끼친다. 순수하고 강렬한 색채가 쏟아지는 전시 공간에서 예기치 않은 위안을 얻었다.

write 최다솜(자유기고가) cooperate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빛의 벙커, 피크닉

Gustav Klimt

온몸을 물들이는 빛의 갤러리

빛의 벙커 : 클림트

지난해 11월 문을 연 '빛의 벙커'는 오랜 시간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비밀 벙커가 변신한 미디어아트 전시관이다. 가로 100m, 세로 50m, 높이 5.5m의 어둡한 내부공간에 들어서면 프로젝터와 스피커를 통해 쏟아지는 이미지와 음악이 환상적인 경험을 선사한다. 개관 후 첫 전시는 올해 서거 100주년이었던 구스타프 클림트의 그림들로 채워졌다. 찬란한 황금빛과 화려한 색채가 특징인 클림트의 작품이 빛으로 변해 영롱하게 살아 움직인다. 어느 전시회처럼 그림을 따라 분주히 움직일 필요는 없다. 바닥에 가만히 앉은 채로, 혹은 벽에 기대 선 채로 한두 시간을 보내다보면 자연스레 작품의 일부가 된다. 만약 그림에 숨겨진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홈페이지에 들러 오디오 가이드를 챙겨가자. 가수 요조의 목소리로 제작되어 한결 반갑다.

일정 2019년 10월 27일까지 주소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 2039-22 빛의 벙커
문의 1522-2653 홈페이지 www.bunkerdelumieres.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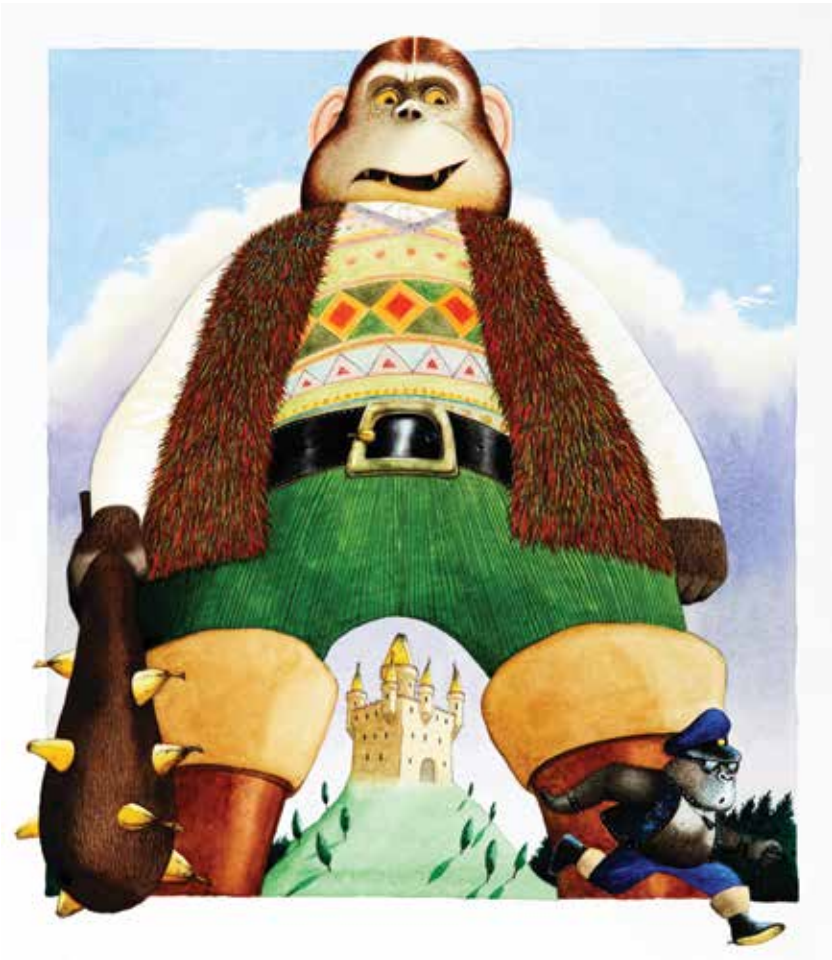


Pina Bausch

무용하듯 거니는 4색 무대
피나 바우쉬 작품을 위한 공간들

화이트, 레드, 핑크, 그린.
네 가지 색으로 치장한 무대가 전시장으로 들어왔다. 20세기 최고의 안무가 피나 바우쉬의 오랜 예술적 동반자였던 무대미술가 페터 팝스트의 단독 전시 '피나 바우쉬 작품을 위한 공간들'이다. 이번 전시는 '무대미술'이라는 생소한 예술 세계를 그 안에서 직접 보고 만지고 걸으며 체험할 수 있는 드문 기회다. 지하 1층부터 옥상까지 건물 전체를 사용했는데, 관람객은 모든 전시 공간을 무용하듯 거닐게 된다. 새하얀 눈발 위로 빼곡한 자작나무 숲과 5만 송이 붉은 장미로 뒤덮인 무대, 분홍빛 카네이션이 만발한 휴식 공간 등 전체가 하나의 작품과 같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서로 다른 정서와 이야기를 들려준다.

일정 2019년 10월 27일까지
주소 서울시 중구 퇴계로6가길 30 피크닉
문의 02-318-3233 홈페이지 www.piknic.kr



Willy the Dreamer 1997 ©Anthony Browne



My Dad 2000 ©Anthony Browne

Anthony Browne

현실에 환상을 덧칠하다
앤서니 브라운의 행복극장

앤서니 브라운은 전 세계에서 가장 사랑 받는 그림책 작가 중 한 명이다. 그의 작품은 섬세한 붓 터치와 다채로운 색감으로 묘사된 비현실적 환상이 넘친다. 주로 고릴라나 원숭이 같은 동물을 주인공 삼아 이야기를 풀어내는데, 그 안에 숨겨진 따뜻한 시선과 위트를 덧씌운 진지한 질문이 잔잔한 위안을 전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그동안 국내에 공개되지 않았던 일러스트 원화를 비롯해 영상과 미디어아트 등 200여 점을 선보인다. 특히 올해 신작 '리틀 프리다'를 원화와 함께 작은 뮤지컬 공연으로 감상할 수 있어 흥미롭다. 스토리텔러와 함께 하는 전시 투어, 행복도서관, 미술 체험 등 관객 참여 프로그램도 준비된다. 전시 투어는 평일 낮 12시와 3시에 무료로 운영된다. 도서관에서는 지금까지 국내에 출간된 앤서니 브라운의 모든 작품들을 맘껏 볼 수 있다.

일정 2019년 9월 8일까지 주소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406 예술의전당 한가람디자인미술관
문의 1522-2653 홈페이지 www.bunkerdelumieres.com



The Tunnel 1989 ©Anthony Browne



Little Frida 2019 ©Anthony Browne



Little Beauty 2008 ©Anthony Browne

혐오와 차별에서 비롯되는 외국인 대상 범죄

일부 외국인의 잔혹한 범죄와 이를 과장해 묘사하는 미디어 등을 통해 외국인은 '예비 강력사범'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실상은 반대다. 오히려 외국인 근로자들이 폭행과 사기 등 각종 범죄의 먹잇감이 되고 있다.



국내에서 이주노동자·결혼이주여성 등 체류 지위가 불안정한 외국인은 늘 범죄에 노출돼 있다. 실제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 가운데 살인·폭행·성폭력 등 강력범죄 비중은 96%에 이른다.

반면 국내에서 각종 범죄 등에 노출된 외국인들은 신고는 물론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국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지원받은 외국인 범죄피해자는 133명에 불과했다. 지난 2016년 91명, 2017년 111명에 비해서는 소폭 늘어났지만 같은 기간 전체 범죄피해자 지원 인원이 1만 여명에 달한 것에 비칠볼 때 1%에 불과한 수준이다.

외국인이 국내에서 저지른 범죄는 통계를 작성하고 있지만 외국인이 피해를 입은 경우는 집계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일반적으로 외국인의 경우 범죄 피해를 당해도 혹여나 문제가 생겨 강제 출국 등을 당할까 두려워 신고를 꺼린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할 때 우리 주변에서 실제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폭행 등 각종 범죄는 훨씬 더 많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 관계자는 “국내 체류 외국인 중 범죄피해자는 약 8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측한다”며 “이에 반해 지원센터 문을 두드리는 이들은 극소수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외국인 범죄피해자들의 사법기관 이용 기피 정서가 이들을 지원제도에서 멀어지게 한다고 설명했다. 수사기관 혹은 외국인 단체의 범죄피해자 지원제도에 대한 무지도 문제로 꼽혔다. 또 어렸사리 외국인 범죄피해자가 지원제도를 이용하더라도 실제 지원을 받기는 그야말로 '하늘의 별 따기'라는 지적도 이어졌다.

국내 체류 외국인은 꾸준히 증가하여 2018년 12월말 현재 236만명을 넘어섰다. 이제 우리나라도 외국인 대상 범죄 문제를 본격적으로 고민해야 할 시점을 맞이한 것이다. 이 같은 맥락에서 지난 4월 범죄피해자보호지원제도에서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 지침'이 개정됐다는 점은 그나마 반가운 소식이다. 기존에는 적법체류자인 외국인이 범죄 피해를 입더라도 가해자가 한국인인 경우에만 지원 대상에 포함됐으나, 개정된 지침에는 적법체류자인 외국인, 외국인 등록을 한 재외동포가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도 피해자를 지원해주도록 했다. 또 범죄피해 외국인의 권리 및 지원제도 안 내문에 대해서도 기존 4개 외국어(영어·중국어·일본어·베트남어)에 11개 외국어가 추가됐다. 아직 갈 길은 멀지만 달라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범죄피해를 당한 외국인의 권리 및 지원제도 안내서

범죄로 피해를 당한 경우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권리행사 및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불안 또는 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는 경우 신뢰관계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할 수 있으며, 의사소통을 위해 통역인을 요청할 수 있고, 재판에 직접 참여하여 사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②성폭력이나 아동학대 범죄의 피해자인 경우 형사절차상 법률적 조력을 받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변호사가 없는 경우 검사가 선정하는 국선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범죄의 피해자인 경우 검사 또는 경찰에 가해자의 접근금지명령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거나, 법원에 직접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④가해자로부터 피해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 일정한 심사를 거쳐 검찰청으로부터 치료비 등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이 경우 피해자는 적법한 대한민국 체류자격이 있어야 하고, 가해자가 외국인인 경우 피해자는 외국인 등록 등을 마친 자이어야 합니다.)

⑤가정폭력이나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인 경우 수사·재판 또는 권리구제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다만, 가정폭력의 경우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합니다)

⑥살인, 상해 등 생명·신체 피해 범죄와 절도, 사기 등 재산 피해 범죄 및 성범죄 등 범죄피해를 입어 수사 등 피해구제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피해자가 불법체류자이더라도 담당 공무원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상정보를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권리 및 지원제도 안내서는 대검찰청 홈페이지(www.spo.go.kr) 알림소식에서 확인 및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WITH U 전문가 칼럼

조금은 특별한 활동

국내 체류 외국인이 200만명을 넘어선지 오래다. 이제는 더 이상 그들을 범죄피해 소수자라고 방관할 수는 없다.

write 신경우(헬파티엘에스 대표이사, 안산시흥광명 범죄피해지원센터 외국인분과위원장)

“지난해 기준 국내 거주 외국인이
200만명을 넘어서고
다문화 사회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더욱 증가되는 지금, 더 이상 그들을
범죄피해의 소수자라고
방관할 수는 없다.”



외국인들은 언어소통의 장애와 문화적 차이, 체류 지위의 불안정 등으로 범죄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지난해 기준 국내 거주 외국인이 200만명을 넘어서고 다문화 사회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더욱 증가되는 지금, 더 이상 그들을 범죄피해의 소수자라고 방관할 수는 없다.

특히 안산시흥광명 범죄피해지원센터의 관할 3개 시에는 전국 최대의 국가산 업단지인 시화·반월 공단이 들어서 있고, 사업·취업·노동 등의 사유로 거주하는 외 국인이 13만여 명에 이른다. 그러다보니 외국인 관련 분쟁이나 형사사건도 해마 다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실질적인 지원방안 역시 꾸준히 요구되고 있다.

안산시흥광명센터는 이러한 지역적 특수성을 감안하여 2008년 외국인 분과위 원회를 결성하고 위원 11명 가운데 3명을 외국인으로 구성하는 등 현실에 맞는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오고 있다. 특히 외국인 분과위원회는 매년 분기별 간담회를 열고 외국인 위원의 의견을 수렴, 적극 반영함으로써 외국인 범죄피해자 지원제도의 부족함을 하나하나 채워나간다. 또 외국인 분과위원 중 파키스탄 출신 귀화인 무하마드수바칸 씨를 강사로 선임하고 관내 외국인 주민과 자녀를 대상으 로 영어 수업을 진행하는 등 다문화가정의 국내 정착에도 힘쓰고 있다.

이와 함께 안산시흥광명센터는 안산시 원곡동, 시흥시 정왕동 등 외국인 밀집거리 에서 범죄피해자 지원 제도 홍보를 위한 가두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매회 캠페인 에는 50명이 넘는 인원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은 시민들을 대상으 로 4개 국어로 제작된 범죄피해자 지원 안내서를 배부하고 환경정화 활동에도 나 서고 있다.

다문화시대에 범죄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외국인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현실에 맞는 지원제도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 안산시흥광명센터는 지금까지 해왔던 사업들을 다시 한 번 점검하여 내실을 기하 고, 범죄피해를 입은 외국인의 인권보장과 피해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활동에 앞장설 계획이다.

WITH U 피해자 수기

다량안심캠페인 수기 발표작

딸아이와 함께 사는 그날을 기다리며

write 민지선



안녕하세요.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시집 온 민지선입니다. 한국에서 생활한지 벌써 9년이 되었네요.
그 세월동안 저는 참으로 많은 일을 겪었고, 현재는 제2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저처럼 가정폭력 피해자분들께 작은 힘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9년 전 한 시골 마을로 시집와 시어른을 모시며 남편과 예쁜 딸이랑 살았습니다.
남편은 결혼 전부터 알코올중독자였는데 결혼하고 아이가 생긴 다음에도 고쳐지지 않았습니니다.
돈이 생기면 술집에 가서 다 쓰고, 심지어 생활비까지 손대는 일도 많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일하고 들어온 제게 술 마실 돈을 요구하고, 주지 않으면 욕설과 폭언, 협박을 일삼았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처럼 남편에게 사랑받으며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싶었습니다.
무엇보다 딸아이를 위해 수도 없이 참으며 남편한테 많은 기회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쉽게 변하지 않았고
가정 폭력은 지속되었습니다. 결국 저는 폭행과 죽이겠다는 협박이 두려워 남편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리고는 7살 된 딸아이와 함께 가정폭력 피해자 이주 여성 보호센터에 들어갔습니다.
보호센터에서 생활하면서 재판을 진행했고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인연이 되어 법정동행 등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가정 파탄의 원인이 마치 제게만 있는 것처럼 폭력을 행사하려는
시어머니와 시누이로부터 저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재판 결과 아이의 양육권이 남편에게 넘어가고 매달 20만원의 양육비를 줘야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딸아이를 제 품에서 떠나보내고 보호센터에서도 나와 혼자 죽을 만큼 힘들고 아팠습니다.
그래도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가정 방문 상담과 물품을 지원해주고,
아이를 만나는 날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해주어 견딜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엄마라면 제 심정을 이해하실 겁니다. 저는 한국 땅에서 딸아이를 양육하며 모범이 되는
엄마로 당당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간호학원에 다니기 시작한 것도 이런 마음에서였습니다.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를 통해 학원비와 식비, 교통비를 지원받았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도 빠짐없이 학원에 다니며 제 꿈을 키웠습니다.

물론 베트남 출신이라 한국어에 의료용어까지 공부가 쉽지만은 않았습니니다.
낮에 일을 하고 저녁에 학원까지 갔다가 집에 돌아오면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는지 울기도 많이 울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머니как요, 강해져야 했습니다. 미래에 딸아이와 살 수 있는 기회를 만들려면 노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길고 긴 1년이 흐르고, 노력이 결실을 맺어 간호조무사 자격증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저는 이 기쁨을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선생님들과 제일 먼저 나누고 싶었습니다.
선생님들은 저보다 더 많이 기뻐하시고 고마워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자기소개서 작성과 면접 지도,
신원보증 문제까지 취업 준비를 꼼꼼하게 도와주셨습니다. 덕분에 저는 지역 내에서 가장 좋은 병원의
간호조무사로, 그것도 정규직으로 입사하여 제2의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딸과 한집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그 날만을 떠올리며 마음의 상처를 비워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저처럼 범죄피해로 힘든 일을 겪고 있다면 고민하지 마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전화를 걸거나 방문해서 상담을 받아보세요. 친절하고 마음씨 고운 선생님들이
여러분의 이야기에 귀 기울일 겁니다.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힘과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세요. 건강과 행복이 늘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외국인 범죄피해자지원 사례 엿보기

국내 체류 외국인이 200만명을 넘어서면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4%를 차지하게 됐다.

반면 전국 59개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접수된 외국인 범죄피해자의 수는 전체 범죄피해자의 1%도 채 되지 않는다.

최근 외국인 범죄피해자에 대한 인권보호와 지원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나,

앞으로도 현 실태를 정확히 파악한 인식의 개선을 통해 효과적인 외국인 범죄피해자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여기서는 2018년부터 최근까지 외국인 범죄피해자 지원에 많은 실적이 있는 몇몇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소개한다.



서울동부센터_ 베트남 여성 살인사건 유족 경제적 지원

서울동부센터는 2018년 이후 총 34건의 외국인 범죄피해자 지원에 나섰다.

연인 관계에 있던 베트남 여성으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은 데 양심을 품고 피의자가 회칼로 피해자의 복부 등을

수차례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에 대해 치료비 및 장례비는 물론 피해자 자녀의 학자금을 지원했으며

유족구조금 신청을 안내한 바 있다. 또한 피해자 동생 부부의 법정 출석 시 동행하고

재판 진행 과정을 상세히 설명해주는 등 충격에 빠진 유가족에 대한 치유와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

수원센터_ 강제 추행 및 폭행 피해를 입은 중국인 지원

2018년부터 총 57건의 외국인 피해자 지원에 나선 수원센터는 중간 소음문제로 찾아온 중국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112에 신고하자 또다시 얼굴을 폭행한 사건에 대해 다방면으로 도움을 줬다.

먼저 피해자 주거지 인근 의료지원 협약병원과 연계하여 긴급치료를 진행하고, 이후 피해자 가정에 직접 방문하는

심리치료프로그램을 20회 시행했다. 또한 생계비, 치료비 전달과 함께 재판 모니터링 및 법률절차 정보 서비스를

4회 실시하여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인천센터_중국인 살인 미수사건 피해자 대상 맞춤형 지원

인천센터는 2018년 이후 50건의 외국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을 실시했다.

최근에는 중국인 피해자를 커터칼로 위협한 후 옥상으로 끌고 가 온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다 반항하자 난간에서 밀어 살해하려는 사건을 접하게 되었다.

센터에서는 피해자 구조 제도의 상세한 안내와 지속적인 심리치료를 시행하고 법률적 문제 해결을 위한 자문과 생계비, 치료비를 지원하는 등 범죄피해의 충격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힘썼다.

군산익산센터_관련 기관 협조로 미국 국적 피해자 지원

군산익산센터는 2018년 이후 37건의 외국인 범죄피해자 지원에 나서고 있다. 최근에는 친언니가 형부로부터

감금폭행 당하는 모습을 보고 쓰러진 동생이 뇌출혈과 언어장애로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된 상황을 접했고,

관련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지원활동에 나선 바 있다. 결국 언니는 살해되었고, 미국 국적을 소지한 피해자 동생은

미국에서 치료받기를 희망했다. 이에 센터는 항공권의 좌석 승급비용을 보조하고, 군산지청의 도움을 받아 치료비를 전달했다.

또 동군산병원에서는 항공사측에 의료 서비스 및 장비 지원을 요청해 피해자 가족의 심신안정을 꾀했다.



피해망상증이 부른 참사 진주 방화 살인사건

2019년 4월 17일 새벽,
경남 진주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입주민이 자신의 아파트에 불을 지른 후 대피하는 주민들을 상대로
흉기를 무차별적으로 휘둘러 5명이 숨지고 19명이 부상을 입은 대형 참사가 발생했다.

사건 개요

- 1—— 해당 아파트에 혼자 살고 있던 안모씨는 기초생활 수급자로
특정한 직업을 찾지 못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임금체불 등에
대한 불만과 함께 정신분열증 병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
- 2—— 피의자 안모씨는 자신의 아파트에 불을 지른 후
1층으로 내려와 화재를 피해 대피하던 주민들에게 양손에 들고 있던
예리한 흉기 2개를 들고 범행을 저지름



1—일자별 주요 추진 사항

- 부상자 입원 병원에 경찰 상주 배치
- 경찰과 진주센터 추가 피해 상황 공유
- 사건현장 정리 및 주거 이전

2019. 4. 17

2019. 4. 18

- 장례비 지원 및 성금 모금 안내
- 통합 심리상담센터 운영
- 사건 발생 소재 초등학교 학생 심리 검사

- 유가족, 중상자 면담 및 구조금 제도 설명
- 피해자 방문 상담, 유관기관 협의체 구성

2019. 4. 19

2019. 4. 20

- 심리상담센터 운영

- 진주센터 자체모금
성금 5,000만원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

2019. 6. 13



2—기관별 주요 추진 사항



 시사점

- 유관기관이 각각의 역할을 정립하여 긴밀한 협력으로 피해자의 상황 파악 및 안내 실시
- 긴급 경제적 지원 제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적시에 최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치
- 검찰청의 치료비·장례비 지원뿐 아니라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에서 간병비 지원
- 경찰 피해자 입원 병원 상주 배치 및 센터와의 긴밀한 협조 관계 유지
- 진주 센터에서 자발적으로 5,000만원의 성금을 모금,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하여 추후 피해자 지원
소요비용에 대한 부담 경감 노력

아픔을 딛고 내민 따스한 손길



범죄피해자라는 이유만으로 마음의 문을 닫고 숨어버린 이들도,
지원이 필요하지만 방법을 몰라 시간만 헛되이 보내는 이들도 있다. 하지만 다행인 것은, 그 어려운 시간을
이겨내고 따스한 손길마저 내미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이다.
바로 이들처럼.



1

고양파주센터
희망나눔봉사단

고양파주센터의 희망나눔봉사단은 범죄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을 중심으로 구성된 봉사단이다. 학교폭력 피해자의 어머니가 센터로부터 받은 도움에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자 봉사활동을 자처했고, 이를 계기로 2015년 결성되어 현재까지 다양한 활동에 나서고 있다. 대표 활동으로는 열악하고 시설이 노후화된 피해자 가정의 주거환경 개선, 추석맞이 음식 나눔 행사, 겨울철 사랑의 김장 나누기 등이 있다.



2

밀양청년센터
특별한 수제청 담그기

밀양청년센터는 지난 6월 24일과 25일 양일간 '특별한 수제청 담그기' 활동을 진행했다. 그간 센터는 범죄피해자들의 심신 안정을 위해 다양한 심리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해왔으나, 이번 행사는 피해자들이 직접 만든 수제청을 다른 피해자 가정에 전달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달랐다. 밀양청년센터의 '특별한 나눔'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 2013년에는 센터의 도움으로 범죄피해를 회복한 피해자가 생활이 어려운 다른 피해자 가정에 6개월간 곰국과 고기를 전달한 적이 있다.



3

군산익산센터
희망 후원금

군산익산센터에 특별한 후원금이 도착했다. 범죄피해자 유가족이 국가로부터 받은 구조금에 자신의 성금을 보태 만든 후원금 802만5000원이었다. 강력범죄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가족은 우리사회에서 하루빨리 범죄가 없어지고 피해자의 눈물이 마르기를 바란다면 후원금을 전달해 뭉클한 감동을 안겨주었다.



세상을 위한 의미 있는 발걸음 다링안심캠페인

write 박진우
(방송작가,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 홍보위원)



마이크를 잡은 김병찬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들렸다. 마주칠 때마다 인사를 나누는 옆집 아저씨의 목소리는 가물가물해도 김병찬 아나운서의 목소리는 안다. 처음 가보는 광화문 광장. 그이의 목소리가 나침반 역할을 해주었다.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고, 정중하면서도 편안한... 익숙하다고 생각해온 그 목소리의 톤을 새삼 깨달으며 오늘이 그런 날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 날이면 날마다 터지는 범죄와 사건, 사고. 그래서 한편 익숙하면서도 당연히 먼 나라 얘기일 수밖에 없는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 뉴스만 열면 들려오는 그 단어들에 대해서 문득 고개 끄덕이는 한 순간을 경험하게 될까. 어쩌면 오늘의 행사는 바로 그 한 순간의 깨달음, 동참을 위해 준비해온 것이 아닐까.

2019년 6월 15일 오전 열시 반.

유월의 하늘은 맑고 화창했고, 광화문 광장을 가로지르는 바람은 상쾌했다.

“학교 다닐 때 일진한테 당한 게 전부예요.”

중년을 넘어서, 목에 흉터가 선명한 남자 참가자에게 범죄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느냐고 물었다. “일진요?” 나의 되물음에 원가를 더 말하려 입을 벌렸더니 이내 다 물어버렸다. ‘이제 와서...’ 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어느 날 느닷없이 억울하게 당한 일은 생각보다 오래 우리 마음에 상처를 남긴다. 아프다, 라는 말 이외에 떠들고 싶지가 않다. 아니 사람에 따라서는 그 말조차 내뱉고 싶어 하지 않는다. 뭐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돌아보면 복장만 터지지, 라는 생각으로 붓근 열었던 입조차 다물어버린다.

“하나 둘 셋 하면 옆에 분과 ‘다링’ 하고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그날 모인 사람이 대략 2,000여 명. 주최 측에서 선물한 하얀 티셔츠를 입은 그들이 김병찬 아나운서의 리더에 따라 인사를 나누었다. “다링-” 무대 옆에 마련된 부스에는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안전과 안심의 기업인 에스원과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가 주최하고, 법무부가 후원하며 해마다 열린 다링안심캠페인의 역사

와 의미를 담은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한 해 살인, 강도, 폭행, 성폭력 방화 등 강력 범죄만 300,000건 이상이 발생’이라고 적힌 문구 앞에 잠시 멈춰 섰다. 성폭력 사건의 경우 40건이 발생하면 그중 한 건 정도 신고 된다는 어느 경찰관의 말도 떠올랐다. 도대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크고 작은 범죄의 피해자로 숨을 죽인 채 살아가고 있는 걸까.

걷기대회가 시작됐다.

4km에 이르는 알맞은 정도의 산책길이었고, 참가비 등 일체의 부담이 없었다. 오히려 ‘참여해서 걸어주기만 하면’ 한 사람 당 2만원씩의 기부금이 범죄피해를 당한 사람과 가족들을 위해 적립되는 형식이었다. 올해로 6회째. 이제 제법 알려진 덕분일까. 유난히 참가자들이 많았고, 가족 단위로 행사장을 찾은 이들도 제법 보였다. 중고등학생들은 봉사활동을 겸해 친구와 함께 행사장을 찾았고, 유모차에 탄 채로 참가한 꼬맹이 후원자도 있었다. 또 어린 딸의 손을 잡은 젊은 아빠의 모습도 보였고, 초등학교 열댓 명을 인솔해온 선생님들도 있었다.

“좋은 행사잖아요”



세세한 것은 몰라도 다들 걷는 것만으로도, 행사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누군가를 돕는다는 사실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다.

군산에 사는 최윤희 씨는 이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새벽 여섯시 반에 집을 나섰다. 군산익산 범죄피해지원센터에서 사무처장으로 일하고 있는 그녀는 지금까지 범죄피해지원센터와 함께 해온 세월을 돌아보았다. 교장선생님으로 퇴임한 직후, 센터에서 일하며 만난 피해자 중에는 성폭력 피해자들이 많았다. 지적장애인 딸을 둔 한 엄마는 딸이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당해온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았다. 어느 날 밤, 최윤희 씨에게 전화를 걸어와 이렇게 부탁했다. “우리 딸... 이제 선생님이 맡아서 잘...” 세상 떠날 결심으로 전화를 걸어난 것이었다. 세상에서 받은 피해가 너무 크고 무서워서, 그리고 그 딸을 데리고 앞으로 살아갈 날이 너무 아득하고 겁이 나서 엄마는 그런 결정을 내렸고, 최윤희 씨는 그런 엄마를 설득해야 했다. 멀쩡하게 길을 가던 여중생이 인신매매범에게 납치되어 사창가로 끌려간 일도 있었다. 한참 후에 간신히 탈출했지만, 그렇게 탈출한 여성들의 경우 대부분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이 그토록 저주했던 생활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누구도 자신을 이해할 수 없을 거라는 두려움, 될 대로 되라는 포기... 그런데 여중생이었던 그 학생은 달랐다.

다. 학교로 복귀했고, 센터의 지속적인 도움을 받았다. 상담을 받았고, 장학금도 받았고, 성적표가 나오면 센터의 선생님들께 들고 와 보여주기도 했다. 피해자와 지원기관, 그 관계를 넘어 끈끈한 유대감이 형성된 것이다.

“참 얼마나 열심히고, 기특하던지”
지금 대학생이 되었다는 그 여학생 이야기를 하는 순간, 최윤희 씨의 목소리가 그야말로 우렁차졌다. “하하하하” 마치 손녀 자랑을 하듯 그녀는 참지 못하고 사이사이 웃음을 터트렸다.

지난해 6월 있었던 군산화재사건 피해자들의 안부를 묻자, 여전히 치료 중이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술값 10만원 때문에 사람이 가득 찬 술집 입구를 봉쇄하고 불을 지른 사건이었다. 시간은 흐르고 사건은 잊혀졌지만, 피해자들에게는 여

전히 현재진행중인 사건이었다. 그 피해자들과 인터뷰를 했을 때, 모두들 군산익산 범죄피해지원센터에 감사를 표했다. 그저 하는 인사치레가 아니라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물론 지원을 하지만, 그게 돈만으로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게 최윤희 씨의 말이었다. 어떤 사건이든 피해자들이 처음, 그리고 가장 강렬하게 느끼는 감정은 분노다.

“돈을 아무리 가져다부어도 그 분노 앞에는 장사가 없다”고 했지만, 군산에서는 센터와 검찰, 경찰 모두가 합심해서 그 어마어마한 사건을 뒤탈 없이 끌어안기 위해 노력했다.

“정말 감사했어요.”

지금도 그 사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병원치료 중인 김옥희 씨는 몇 번이나 인사를 했었다. 남편이 사준 고운 원피스를 입고, 사고 현장 한가운데에 기절해 누워있었던 그녀는 삶과

죽음 사이를 몇 번이나 오가야 했다. 분노에서 감

사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멀고 먼 길을 걸

어야했을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그

들이 구축한 지원 시스템이 김옥희

씨와 같은 입장에 처한 이웃의 손을

잡아주기 위해 노력해 온 것일까.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 무

대 위에서는 버스킹 행사를 위한 준

비 작업이 진행되었다. 걷기대회에 갔

던 참가자들이 하나둘씩 돌아오기 시작했

다. 그 사이 서산센터 관계자의 수기발표가 이어

졌다.

“찾아가는 방문 상담을 시행한 결과...”

찾아가는 방문 상담이라... 도움을 주려는 쪽이 고자세일 때

도움을 받는 쪽은 불편해진다. 아니, 그깟 도움 안 받고 만

다, 는 마음이 열두 번도 더 들 것이다. 그러나 그날 내가 광

화문광장에서 만난 전국범죄피해지원연합회, 센터 사람

들은 달랐다. 늘 그랬다. 조용히 손을 내밀고, 간절하게 잡아

주기를 원했다.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용기를 내어 그 손을

잡았을 때, 그들은 따뜻한 태도로 그 손을 꼭 붙들었다.

오후 열두시 반. 걷기대회를 마치고 온 이들로 광장은 다시

소란스러워졌고, 소음 사이를 버스킹의 전주가 비집고 들어

왔다. 음악소리가 들려오자, 참가자들은 무대 가까이 자리를

잡았다.



“이렇게 좋은 행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멀리서 혹은 가까이에서 다령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달려와 준 이들은 음악으로 그날 행사의 마무리를 짓고 있었다. 시간이 가면 오늘의 행사는 잊혀질 것이다. 하얀색 티셔츠가 조금씩 빛 바래가면, 2019년 6월 15일 우리가 함께 했던 햇살과 바람과 노래들은 다 지워질 것이다.

그러나 어느 날 문득, 누군가 가까이에서 사건의 피해자가 된다면 우리는 머릿속에서 오래 전에 담아두었던 다령과 범죄피해지원센터, 방문 상담.. 그런 단어들을 꺼내게 될지도 모른다. 느닷없는 사고에 길을 잃은 사람들에게 느닷없는 나침반 역할을 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리고 또 어쩌면, 혹 우리가 그 자리에 서게 되는 일이 생겼을 때 용기 내어 한 발, 세상을 향해 한 발 내딛을 수 있게 될지도 모른다.

그리 되라고, 그리 하기를 바란다고, 그리 해야 한다고... 그날 광화문 광장을 가로지르던 바람이 우리 귀에 속삭였다. 그런 순간에도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니라고...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 활동 소식

KCVA news

제6회 다림안심캠페인 개최

‘제6회 다림안심캠페인’이 지난 6월 1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과 청계천 일대에서 열렸다. 다림안심캠페인은 범죄로 상처 받은 피해자들의 치유와 회복을 응원하는 공익캠페인으로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와 에스원이 공동주최하고 법무부가 후원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김갑식 연합회장, 김오수 법무부 차관, 임석우 에스원 부사장을 비롯해 전국 센터 종사자 및 자원봉사자, 시민 등 2,000여 명이 참가했다. 특히 올해는 기존과 다르게 캠페인 당일인 6월 15일을 다림데이로, 6월 11일부터 15일까지를 다림위크로 설정, 더 많은 시민들이 범죄피해자의 고통과 아픔을 공유하고 피해자 보호·지원 제도의 가치에 대해 공감했다.

본행사인 금금 마련 나눔걷기는 다림데이에 열렸다. 나눔걷기는 광화문광장에서 청계천을 따라 세운교까지 약 4km의 코스를 완주하면 에스원이 한 명당 2만원씩 기부금을 적립하는 방식이다. 행사장 내에서는 센터 사회적기업인 스마일화원의 다육이 심기와 무지개공방의 칠보공예 만들기 체험, 행복마루·희망카페의 커피 무료 시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또 대검찰청 캘리그래피 동호회 작가들이 따뜻한 위로의 글귀를 현장에서 직접 써주는 캘리그래피와 버스킹 공연 이벤트도 열렸다.



한국피해자지원연구소 회의 개최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는 지난 1월 8일 김갑식 연합회장, 박광민 피해자지원연구소 이사장 등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피해자지원연구소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2018년 주요사업 실적 보고 ▲2019년 주요사업 계획 발표 ▲‘전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15년사’ 구성 및 내용 공유 순으로 진행됐다. 연합회와 한국피해자지원연구소는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내용에 대해 공동연구하고 지속적으로 함께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2019 상반기 권역별 회의 개최

2019년 상반기 권역별 사무처장 회의가 지난 1월 18일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2019년 연합회 사업 계획, 전국 행사 개최 시기, 피해자 지원 사업 등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졌다. 또 연합회와 센터 발전을 위한 신규 사업 아이디어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나눴다.



법무부장관 주재 신년 간담회 열려

지난 1월 31일 법무부장관 주재 신년 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간담회는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 임원단과의 직접 소통을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피해자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오랜 세월 헌신하고 노력해온 이사장님과 종사자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마음을 전했다.

한편 이날 전국 센터의 중추기관으로서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법무부 장관의 감사패가 연합회에 수여되었다.

센터 15년사 발간 기념회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는 지난 4월 26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센터 15년사 발간 기념회를 개최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범죄피해자와 함께 걸어온 센터의 발자취를 되새기며 새로운 변화와 도약을 다짐했다. 센터 15년사 백서에는 2003년부터 2017년까지 연혁, 그간의 성과, 이와 관련된 지표와 사례 등 다양한 내용이 담겼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범죄피해자 회복과 지원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온 전문가를 선정, 홍보위원 위촉장을 수여하는 순서도 마련됐다.



2019 정기총회 개최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는 지난 2월 22일 세라톤 서울 팔래스 강남 호텔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2018년 사업보고 및 결산 ▲2019년 사업계획 및 예산 등에 대한 의안을 승인·의결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갑식 연합회장을 비롯해 전국 센터 이사장과 법무부 황희석 인권국장, 김종현 인권구조과장, 대검찰청 허정수 피해자인권과장이 참석했다.



전국 센터 직원 대상 워크숍 개최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는 지난 5월 23일과 24일 양일간 경주 컨벤션리조트에서 워크숍을 개최했다. ‘해피투게더 심포 넷’이라는 주제로 마련된 이번 워크숍에는 연합회와 59개 센터 종사자들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리더십과 행복한 직장 만들기’에 대한 강연을 듣고 경주의 문화유적지와 유물들도 관람하며 재충전의 시간을 가졌다.



전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활동 소식

CENTER news



서울중앙센터 제7기 대학생 자원봉사자 발대식 개최

서울중앙센터(KCVC) 제7기 자원봉사자 발대식이 지난 3월 7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13층 브리핑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발대식에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3부장검사, 피해자지원과장, 센터 이사장 및 위원, 법무담당관 등이 참석하여 대학생 자원봉사자를 격려했다. 대학생 자원봉사자는 센터에서 범죄피해자를 위한 멘토링, 법정 모니터링 등 법률지원 활동과 기타 범죄피해자 경과 관찰, 지원 보조 활동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서울남부센터 강력범죄피해자를 위한 주거환경 개선 실시

서울남부센터는 지난 3월부터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강력범죄 피해자 중 취약계층 다섯 가구를 선정하여 보안시설물 설치 및 도배·장판 시공 등 생활환경 전반을 보완·개선함으로써 범죄피해자의 불안감 해소와 삶의 질 향상을 돕기 위한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본 프로그램은 2019년 하반기까지 지속되며, 피해자 요청이 있을 시 '가정용 CCTV'를 무상 제공할 계획이다.



서울동부센터 송파경찰서 사례회의의 참석

서울동부센터는 지난 5월 31일 송파경찰서 관내 사례회의에 참석하여 범죄피해로 인한 정신적 충격으로 자살 기도한 피해자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피해자의 현재 상황과 지원 가능한 부분에 대해 파악하고 각 기관에서 중복되는 항목 없이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협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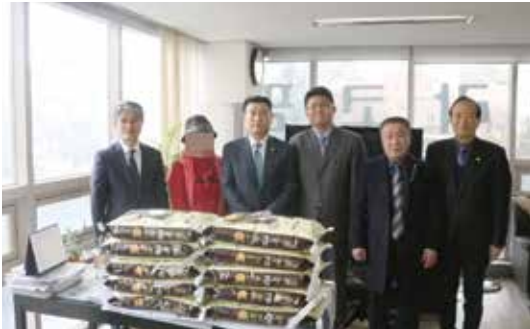
서울서부센터 '따뜻한 마음 나눔' 온수매트 지원

서울서부센터는 지난 1월 설 명절을 앞두고 따뜻한 마음 나눔 실천을 위해 범죄피해자 40세대를 방문하여 온수매트를 전달했다. 이 외에도 피해자 80여 명에게 설 선물세트를 지원하였으며, 서울서부센터의 사회적기업인 '행복마루' 수익금 1000만원으로 피해자 50명에게 생계비를 전달했다.



고양파주센터 국제꽃박람회 현장 홍보활동 전개

고양파주센터는 지난 5월 9일부터 나흘간 일산 호수공원에서 열린 '2019 고양국제꽃박람회'에서 범죄피해자지원센터 홍보활동 및 무료 법률상담을 진행했다. 고양파주센터 5개 지부 위원장 및 위원들은 센터 홍보 리플렛과 볼펜을 나눠주며 범죄피해자 지원 제도에 대해 적극 홍보했다. 특히 법률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을 위한 무료 법률상담에 이효주 변호사가 힘을 보탰다.



부천김포센터 범죄피해자 가정에 사랑의 쌀 전달

부천김포센터가 설 명절을 맞아 사랑의 쌀 나누기 행사를 진행했다. 사랑의 쌀은 범죄피해에 수해까지 겹쳐 거주지를 잃고 근처 상가 건물에 의탁하여 지내는 가정과 오랫동안 가정폭력으로 고통을 받은 모녀에게 전달됐다. 한편 상가 의탁 가정은 부천김포센터의 연계로 스마일 공익신탁기금을 지원받아 현재 LH 임대주택 입주를 준비 중이다.



인천센터 범죄피해 청소년 심리치유 프로그램 마련

인천센터가 범죄피해를 입은 청소년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심리치유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센터는 지난 3월부터 대검찰청 캘리그라피 동호회의 지원을 받아 청소년 피해자 및 보호자 17명을 대상으로 심리치유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참여자들은 액자, 양초, 가방 등 소품에 글씨와 그림을 그려 넣으며 심리적 여유와 정서적 안정을 도모했다. 청소년 피해자 치유 프로그램은 연말까지 총 10회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수원센터 범죄피해자 지원 담당관 간담회

수원센터는 지난 5월 17일 수원지방검찰청 회의실에서 범죄피해자 지원 담당관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검찰 피해자 지원 법무 담당관, 피해자지원담당관 및 관내 8개 경찰서 피해자 지원 담당관이 참석했다. 각 기관들은 앞으로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범죄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지원활동을 전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여주이천양평센터 여성 장애인 범죄피해자 수용 시설 위문

여주이천양평센터가 지난 1월 31일 전국 여성 장애인 범죄피해자 수용 시설인 '소빛'을 방문해 생필품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이사장, 부장검사, 운영위원 등이 참석했으며, 피해자와 시설 종사자를 만나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말을 전했다.



평택안성센터

사랑의 감자 심기

평택안성센터는 지난 3월 23일 안성무지개서포터 주관으로 범죄피해자지원금 마련을 위한 '사랑의 감자 심기'를 진행했다. 매년 초 감자 등 농사를 지어 수확한 후 판매한 수익금은 연말 센터에서 개최하는 '사랑의 마음 전달식'을 통해 어려운 가정환경의 피해자들에게 물품이나 상품권으로 지원하고 있다.



안양센터

울타리 가족 힐링팜 개장

안양센터는 지난 4월 23일 '울타리 가족 힐링팜' 개장식을 가졌다. '울타리 가족 힐링팜'은 안양 지역 범죄피해자들의 치유를 위한 주말농장인데 이날 개장식에는 범죄피해자 자조모임인 '울타리' 회원 12가족이 참석해 상추, 피망, 가지, 고추 모종 등을 심으며 봄의 시작을 알렸다.



안산시흥광명센터

가두 캠페인 및 환경정화 활동 실시

안산시흥광명센터는 지난 4월 시흥시 정왕동 외국인 밀집지역 (일명 외국인거리)에서 법질서 확립과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가두 캠페인과 환경정화 활동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지청장을 비롯한 간부진과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임원, 외국인분과위원, 자원봉사자 등 40여 명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1.2km 구간에 걸쳐 환경 정화운동을 실시했으며, 영문 등 4개 국어로 제작한 범죄피해자 지원 절차 안내서를 배부하며 홍보 캠페인을 벌였다.



강릉센터

유관기관 간담회 개최

강릉센터는 지난 4월 5일 춘천지검 강릉지청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강릉·동해·삼척 지역 20개 유관기관이 참석하여 각 기관의 주요 활동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에서의 노하우와 보완해야할 지원사항 등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영월센터

사랑의 연탄 나눔 행사

영월센터는 지난 4월 25일 범죄피해자 가정에 연탄 나눔 활동을 진행했다. 이날 봉사활동에 참여한 센터위원과 영월지청 직원들은 피해자 가정에 연탄을 직접 배달하며 비지땀을 흘렸다. 영월센터는 평상시 성범죄로 인한 경제적·심리적 고통에 시달리는 피해자에게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논산부여계룡센터

범죄피해자를 위한 힐링캠프 열어

논산부여계룡센터는 지난 4월 11일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들로 구성된 피해자 자조모임 회원들을 초청해 힐링캠프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날 회원들은 전통공예 체험장 '기쁨두배'에서 한지 편지함과 바구니 만들기 체험에 나섰고 복합 문화 공간 '선사 인랜드'에서 밀리터리 체험과 드라마 세트장 관람 등을 하며 힐링의 시간을 보냈다.



공주청양센터

'함께하는 파랑새' 동행 나들이 개최

공주청양센터는 지난 5월 17일 전북 고창 일대에서 '함께하는 파랑새' 동행 나들이를 진행했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범죄피해자 가족과 상담위원들과의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하고 피해자간의 공감 치유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준비됐다. 나들이에 나선 참가자 30명은 고창의 청보리밭과 고인돌박물관을 함께 둘러보고 서로 대화를 나누며 친밀감을 높였다.



서산센터

음식을 통한 치유 및 집단상담 프로그램

서산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지난 5월 20일 범죄피해자 가족을 대상으로 음식을 통한 치유 프로그램과 집단상담을 진행했다. 음식 만드는 과정을 통해 자아표현, 자아수용, 자아성장을 촉진시키고 집단상담에 참여해 의사소통 기법을 익히며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



속초센터

관내 피해자 통합지원을 위한 사례회의

속초센터는 친부의 성폭력과 성매매로 인해 고통에 처해 있는 피해자 가정의 회복을 위한 사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경찰서, 정신보건건강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스마일센터 등 관내 유관기관 실무자들이 참석해 피해자 가정의 보호·지원 방안과 피해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천안아산센터

2019 정기총회 및 이사상 이·취임식

천안아산센터는 지난 3월 19일 충남북부상공회의소에서 정기총회 및 이사장 이·취임식을 열었다. 이날 센터는 2018년 사업실적 및 예산집행 내역을 보고하고 2019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의결했다. 또 지난해 범죄피해자 지원에 기여한 모범위원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 피해자 자녀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청주센터 범죄피해자 심리치료 지원

청주센터는 지난 5월 21일 범죄피해의 아픔을 가진 피해자와 가족을 초청해 켈트공예 바느질 테라피를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생활지원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바느질 작품을 만들며 사건 이후 일상생활에서 겪어온 긴장과 스트레스, 우울감 등을 해소했다.



제천단양센터 센터위원 대상 워크숍 개최

제천단양센터는 지난 5월 16일 센터위원을 대상으로 업무 역량 강화 및 소통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을 진행했다. 이번 워크숍에는 제천지청장과 담당검사도 참석하여 센터위원들과 함께 생태길을 걸으며 결속과 친목을 다졌다.



영동옥천센터 지역 행사장에 홍보부스 설치 운영

영동옥천센터는 지난 5월 열린 '2019 영동군 세계인의 날' 행사에서 범죄피해자 지원 제도 활성화를 위한 홍보 활동을 펼쳤다. 센터는 이날 행사장에 홍보부스를 설치하고 개운죽 화분 만들기 등 체험 행사를 진행하여 관람객들의 관심을 이끌었다.



대구서부센터 중증장애인 시설 찾아 나눔 봉사 활동

대구서부센터는 매월 첫째 주 목요일마다 중증장애인 시설을 찾아 다양한 나눔 봉사를 실천하고 있다. 대외협력위원회 주관으로 구성된 봉사단은 중증장애인과 함께 산책하고 미술, 운동 등 학습활동을 보조하며 장애인들의 육체적 기능이 퇴화되거나 변형되지 않도록 돕고 있다.



경주센터 문화예술 공연을 통한 피해회복 지원

경주센터가 문화예술 공연을 통한 범죄피해자 피해회복 지원에 나섰다. 지난 1월에는 범죄피해자 자조모임 '희망동행' 멤버와 가족을 초청해 경주 예술의전당에서 열린 '장사익 콘서트'를 관람하는 피해회복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또 4월에는 관내 범죄피해자 및 가족 11명과 함께 연극 '늘근도둑이야기'를 관람하며 서로 아픔을 공감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포항센터 정서 안정을 위한 무용동작 치료 실시

포항센터가 범죄피해로 힘들어하는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무용 동작 치료를 운영하고있다. 월 2회 진행되는 치료 프로그램에는 방송 댄스 강사가 재능기부 형식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댄스 활동은 범죄피해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주로 나타나는 우울과 스트레스 완화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김천구미센터 범죄 예방 및 호신술 교육 실시

김천구미센터는 지난 5월 4일, 25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범죄 예방 호신술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최근 어린이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관내 학생들에게 각종 범죄 상황으로부터 자신의 안전을 스스로 지키는 데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상주문경예천센터 관내 경찰서와 홍보 캠페인 전개

상주문경예천센터가 관내 경찰서와 함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홍보 캠페인을 벌였다. 센터는 지난 4월 상주 농업기계박람회장, 5월 문경 찻사발축제장에 홍보부스를 설치하고 범죄피해자 지원 제도 등이 담긴 리플릿과 홍보물품을 시민들에게 배포해서 많은 호응을 받았다.



경북북부센터 판매장인 수상자 포상금 전액 기부

지난 5월 15일 '올해의 판매장인'으로 선정된 최은규 씨가 부상으로 받은 포상금 200만원 전액을 범죄피해자 지원에 사용해달라며 경북북부센터에 기부했다. 현 대자동차 영주지점에 근무하며 경북북부 운영위원으로 활동 중인 최 위원은 "이번 기회를 통해 작은 힘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게 되어 뿌듯하다"고 전했다.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 최중무 지청장과 경북북부 김해동 이사장은 최 위원의 따뜻한 기부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감사패를 전달했다.



의성군위청송센터 자원봉사자 워크숍 개최

의성군위청송센터가 지난 4월 경북 울진 일대에서 센터위원 및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센터위원과 자원봉사자들의 자긍심과 사명감을 고취시키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피해자 지원의 정신의학적 고찰'을 주제로 한 정근재 박사의 특강을 듣고, 울진원전 전 시관, 후포 등기산스카이라이프 등을 견학했다. 또 박태호 의성지청장과의 간담회를 통해 피해자 지원 정책에 대한 활발한 토론과 질의 응답시간도 마련됐다.



부산센터 범죄피해자 인권 지키기에 앞장

부산센터가 범죄피해자 인권 지키기에 나섰다. 부산센터는 지난 3월 30일 부산어린이대공원에서 대학생 인권지킴이단 60여 명과 함께 범죄피해자 인권 지키기 및 범죄피해자 지원 관심 촉구 를 위한 홍보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날 캠페인에 참여한 센터위원 및 학생들은 홍보조끼를 착용하고 리플릿 등을 배부하며 범죄피해자의 인권 증진에 참여를 부탁했다.



울산센터 한화케미칼과 함께한 첫 번째 힐링캠프

울산센터는 지난 5월 28일 경북 청도군 일원에서 범죄피해자 가정을 위한 제1회 힐링캠프를 개최했다. 한화케미칼 울산공장이 후원한 이번 행사에는 범죄피해자와 가족 17명이 초청됐다. 참가자들은 와인터널 등 청도의 주요 관광지를 둘러보며 피해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간 듯 편안한 시간을 보냈다.



부산서부센터 설립 1년여 만에 범죄피해자 지원 활동 정착

2017년 10월 문을 연 부산서부센터가 짧은 기간동안 다양한 범죄피해자 지원 활동에 나서고 있다. 센터는 지난해 7245만 4600원 상당의 지원금을 485건의 피해자에게 전달했으며, 올해(5월 5일 기준)는 피해 신고 23건을 대상으로 1715만여 원의 지원을 완료했다. 부산서부센터는 사상·사하·강서·북구·서구 등 서부산을 중심으로 발굴한 범죄피해자들에게 심리 상담, 법률 자문, 법정 동행, 의료 및 재정 등을 지원하고 있다.



경남센터 범죄피해자 긴급 지원 체계 구축

경남센터는 지난 1월 30일 위원 2인 이상의 동의로 긴급지원을 시행하고 1개월 이내에 심의회를 개최해 추인을 받도록 규정을 정비했다. 이에 따라 경남센터는 성폭행 피해자의 생계비와 장학금 지원을 위한 긴급 지원 심의회를 개최하고 휴가 중 폭행으로 사망한 피해자 유가족에게 장례비와 치료비를 지급하는 등 신속한 지원에 나서고 있다.



통영거제고성센터 찾아가는 마음 치유 프로그램 진행

통영거제고성센터는 지난 5월 17일 협약병원인 새통영병원과 고성더조은병원에 입원 중인 범죄피해자와 장기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이동법률상담서비스 및 방문심리치유프로그램(원예 치료)을 실시했다. 센터는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통해 범죄피해자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거창합천함양센터 유관기관과 업무협약 체결

거창합천함양센터는 지난 5월 14일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 대회의실에서 거창고용복지플러스센터, 거창지역자활센터, 경천공간 등 3개 기관과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자활센터 참여자 및 위기 청소년, 그 가족들의 범죄피해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통한 상호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밀양창녕센터 찾아가는 홍보 서비스 실시

밀양창녕센터는 지난 4월 상남면 행정복지센터 이장월례회의 및 새마을운동 밀양시지회 워크숍 장소를 찾아가 홍보물품과 리플릿을 배포하며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쳤다. 센터는 앞으로도 찾아가는 홍보 서비스를 수시로 진행하여 소외된 범죄피해자 발굴 및 신속한 피해회복에 주력할 계획이다.



마산합안의령센터 설 앞두고 사회복지시설에 위문금 전달

마산합안의령센터는 설 명절을 앞두고 관내 사회복지시설인 마산 애육원과 로사의 집을 방문해 위문금 100만원과 사과, 배 등 위문품을 전달했다. 이번 위문은 사회복지시설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 청취 등 이웃 사랑 나눔을 실천하고자 마련됐다.



진주센터 원에 예술치료 프로그램

진주센터는 지난 4월 신체적·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범죄피해자 4명을 대상으로 원예 예술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꽃꽂이, 다육심기, 비누 꽃 바구니 만들기, 리스 만들기 등 원예활동을 통해 심신의 안정과 평안함을 누리고 즐거운 분위기 속에 행복감을 느끼는 시간을 가졌다.



광주전남센터 마음을 나누는 공감 캠프 마련

광주전남센터는 지난 3월, 광주스마일센터와 함께 공감 캠프를 개최했다. 공감 캠프는 범죄피해로 인한 스트레스와 생계활동으로 여행이 어려운 범죄피해자 및 가족들을 초청해 진행하는 당일 나들이 프로그램이다. 참가자들은 순천 드라마촬영장 등을 관람하며 범죄로 겪고 있던 스트레스와 우울함을 해소하고 심리적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전남동부센터

범죄피해 청소년에 사랑의 장학금 전달

전남동부센터가 지난 1월 23일 관내 범죄피해 청소년 8명에게 학원비와 교복 구입비를 지원했다. 이번에 전달된 학원비 및 교복비 2020만원은 금호피앤비화학 임직원과 회사가 후원한 기부금으로 마련됐다.



군산익산센터

법의 날 기념 홍보활동 전개

군산익산센터가 지난 4월 25일 '법의 날'을 맞아 시민들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펼쳤다. 군산익산센터는 전주 스마일센터와 공익법무관, 파랑새자원봉사단과 함께 익산역을 찾아 법의 소중함과 범죄의 해악성에 대해 알리고 무료 법률상담 등을 진행했다. 군산익산센터는 해마다 법의 날을 기념해 범죄 없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남원순창장수센터

파랑새 가족 문화체험 실시

남원순창장수센터는 지난 4월 26일 범죄피해의 아픔을 겪은 파랑새 가족을 대상으로 도자기 체험 행사를 실시했다. 남원순창장수센터는 정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범죄피해자 가족에게 원상 회복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치유 프로그램 등을 실시하고 있다.



전주센터

범죄피해자 가정 어르신 대상 자조모임

전주센터는 범죄피해자 가정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자조모임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어르신들의 생신잔치를 분기마다 계획하여 진행 중인데, 이날 초대된 어르신들은 목포의 문화유적들을 둘러보고 제철 해산물을 맛보며 잊지 못할 시간을 보냈다.



정읍센터

설맞이 위문품 전달

정읍센터와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설 명절을 맞아 범죄피해자에게 제수대금과 500만원 상당의 위문품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서 노진영 지청장과 김진태 이사장은 명절마다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관내 3개 지역 회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다.



제주센터

일본 와카야마센터와 협력 강화

제주센터는 지난 5월 16일부터 나흘간 전주센터 및 광주호남권센터 사무처장 등과 함께 일본 와카야마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방문했다. 양 기관은 범죄피해자 지원 활동에 대한 국제교류 방안을 논의했으며 향후 지속적인 유대 협력 관계를 유지할 것을 다짐했다.



전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서울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	02-596-1295
한국범죄피해자지원중앙센터	02-537-1295
서울동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02-448-1295
서울남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02-2644-1295
서울북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02-955-1295
서울서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02-707-1295

경기·인천	
경기북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031-873-1295
고양·파주 범죄피해자지원센터	031-932-1295
인천 범죄피해자지원센터	032-875-1295
부천·김포 범죄피해자지원센터	032-329-2580
수원 범죄피해자지원센터	031-211-1295
성남·광주·하남 범죄피해자지원센터	031-736-1295
여주·이천·양평 범죄피해자지원센터	031-885-1295
평택·안성 범죄피해자지원센터	031-692-1295
안산·광명·시흥 범죄피해자지원센터	031-405-1295
안양 범죄피해자지원센터	031-387-1295

강원	
춘천 범죄피해자지원센터	033-241-1295
강릉 범죄피해자지원센터	033-645-1295
원주·횡성 범죄피해자지원센터	033-744-1295
속초 범죄피해자지원센터	033-638-1295
영월 범죄피해자지원센터	033-375-1295

대전·충청	
대전 범죄피해자지원센터	042-472-1295
홍성 범죄피해자지원센터	041-631-1295
공주·청양 범죄피해자지원센터	041-858-1295
논산·부여·계룡 범죄피해자지원센터	041-745-1295
서산 범죄피해자지원센터	041-660-4377
천안·아산 범죄피해자지원센터	041-621-1295(천안) 041-533-6090(아산)
청주 범죄피해자지원센터	043-288-0141
충주·음성 범죄피해자지원센터	043-856-1295
제천·단양 범죄피해자지원센터	043-643-1295
영동·옥천 범죄피해자지원센터	043-744-1295

대구·경북	
대구·경북 범죄피해자지원센터	053-743-1295
대구서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053-573-1295
경북북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054-857-1295
경주 범죄피해자지원센터	054-777-1295
포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054-255-1295
김천·구미 범죄피해자지원센터	054-430-9091(김천) 054-462-9090(구미)
상주·문경·예천 범죄피해자지원센터	054-533-1295
의성·군위·청송 범죄피해자지원센터	054-833-1295
영덕·울진·영양 범죄피해자지원센터	054-733-1295

부산·울산·경남	
부산 범죄피해자지원센터 '햇살'	051-505-1295
부산동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051-781-1295
부산서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051-207-1295
울산 범죄피해자지원센터	052-260-1295(울산) 055-366-1295(양산)
경남 범죄피해자지원센터	055-262-1295
진주 범죄피해자지원센터	055-748-1301
통영·거제·고성 범죄피해자지원센터	055-648-1295
밀양·창녕 범죄피해자지원센터	055-356-1295
거창·합천·함양 범죄피해자지원센터	055-943-1295
마산·합안·의령 범죄피해자지원센터	055-242-1295

광주·호남	
광주전남 범죄피해자지원센터	062-223-1295
목포 범죄피해자지원센터	061-282-1295
장흥·강진 범죄피해자지원센터	061-864-1295
전남동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061-722-1295
해남·완도·진도 범죄피해자지원센터	061-537-1295
전주 범죄피해자지원센터	063-277-1295
군산·익산 범죄피해자지원센터	063-452-1295
정읍 범죄피해자지원센터	063-534-1295
남원·순창·장수 범죄피해자지원센터	063-635-1295

제주	
제주 범죄피해자지원센터	064-756-7004

고마운 센터 가족에게

저희 가정에 고마움의 손길을 느끼고 알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갑작스런 사고로 아이 아빠를 잃고 아무도 없다고 느낄 때,
망연자실 절망만 떠올리던 저희 가족에게 희망을, 삶에 대한 새싹을 만들어주신
범죄피해자지원센터 가족 모두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어려운 형편에 아이들에게 교복 한 벌 제대로 맞춰주지 못했었는데
함께 염려해 주시고, 또 도와주신 덕분에 깨끗한 교복도 마련해서 우리 아이들
씩씩하게 학교도 잘 다니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알았는지 큰아이가 이젠 공부도 하겠다고 합니다.
잘 하지는 못하지만 애쓰고 있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기쁩니다.
잘 배워서 다른 누군가 도와줄 수 있는 배려 많은 아이로 크라고 당부했습니다.
저와 아이들은 이렇게 하루하루 범죄피해자지원센터 가족들 덕분에
밝은 얼굴을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정을 되돌아보고 남겨진 가족들도 앞으로 살아갈
힘을 찾게 되었습니다.

두서없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고마운 마음을 떠올리며 살아가겠습니다.
무더위에 몸 건강하시고 언제나 가정이 평안하시길 기원합니다.

2019년 6월
OO 엄마가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강력범죄피해자 구호전화

1577-1295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강력범죄피해를 겪은 피해자와 가족에게 상담과
법률지원, 심리지원, 의료지원, 경제적 지원 등을 통해 피해자와 가족이 다시 희망을 갖고 웃을 수 있도록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
Korean Crime Victims Support Association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함께 공감하며 나누고자 합니다.

강력범죄피해자 구호전화 T. 1577-1295 www.kcva.or.kr